4, March, 2026 Vol. 112

E S G

| Bi-Weekly |

신영 ESG

" 본격적으로 녹색 전환(K-GX) 경로에 첫발을 내딛다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녹십자홀딩스

ESG ETF 따라잡기
Fidelity Clean Energy ETF (FRNW)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본격적으로 녹색 전환(K-GX) 경로에 첫발을 내딛다

정부, ESG공시 로드맵 초안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최근 정부는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 임을 강조하며 금융시장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역점 과제로 (1)ESG 공시 제도화 및 (2)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함

최근 정부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국내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금번에 발표된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은 그 동안 관계부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3월까지 추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중 확정 예정임.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임을 강조 하며 금융시장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역점 과제로 (1)ESG 공시 제도화 및 (2)기후금융 활성화를 제시함.

1)2028년(FY2027)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행
2)3월말 사업보고서와 동시 공시, 탄소배출량은 8월중순 공시 허용 검토
3)거래소 공시 뒤 법정공시 전환 하되,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먼저 ESG공시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1)공시시기 및 공시 대상과 관련하여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에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확대하고 추후 국제동향,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논의하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함.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관심이 많았던 2)스코프3는 유예기간을 두고 2031년(FY30)부터 공시를 시작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됨.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되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토하기로 함. 3)공시채널과 공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함. 또한 공시 시점은 원칙적으로 연말 결산 시점(3월말)에 공시하도록 하되,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5월경 배출량을 인증 중인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하여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에 공시 허용 검토.

4)ESG 공시기준: 기후공시만 의무화하고, 기후 외 공시나 내부탄소가격과 산업별 지표 등은 기업 자율로

국내 ESG 공시기준으로는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ISSB의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된 KSSB의 기준이 채택 되었으며, 기존에 발표된 초안 중 기후 공시만 의무화 하고 기후 外 공시, 톤 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 등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택적 공시를 허용함. 또한 공시기준 초안에 포함되었던 정책공시(제101호)의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최종 기준에서는 우선 제외됨.

도표 1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 의견 수렴안(요약)

구분	주요 내용
공시 시기 및 대상(案)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 [예] '29년(FY28) 연결자산총액 10조원, 그 이후는 추후 검토 ※ 다만, 공시 첫해에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예: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 종속회사)는 연결대상 제외한 공시 허용
스코프3 유예(案)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공시(공시대상별로 3년유예)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우선 공시 면제 후 추후 법정공시 전환시 면제범위 재검토
공시 기준	-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IFRS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하되, 국내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 완화
공시 채널(案)	- 거래소 공시로 우선 도입,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 공시 전환
이행 지원(案)	- 스코프3 등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파일럿 테스트 운영, 교육 등 공시이행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스코프3 관련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기존 계획 보다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24~'30년간, 420조원) → ('26~'35년간, 790조원)

또한 정부는 상향된 NDC 달성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한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함.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6~2035년간 총 79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후금융을 투입하여 2035 NDC 달성 지원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예정임. 이는 2024년 3월에 발표되었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 중이던 계획(2024~2030년간, 420조원)보다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안(2026~2035년간, 790조 원)임. 동시에 이 기후금융을 공급하면서,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공개됨

또한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을 위해,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계의 자금 수요를 반영한 관계부처 합동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공개함. 이번에 발표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전환금융을 도입한 주요국(EU,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황에 최적화한 것으로 ①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K-Taxonomy 기반 전환금융과, ②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기반 전환금융 두 가지를 포괄하여 전환금융의 정의를 제시함.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마지막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겪고 있는 기후금융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기후금융이 금융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할 예정임. 먼저 광범위하게 산재된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금융권 현장의 K-Taxonomy 적용 지원을 위한 판단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과를 관리하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임.

도표 2 기후금융 활성화 추진 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주요 내용
기후금융(녹색+전환)의 양적확대	- 현재: '24~'30년(7년간) 기후정책금융 420조원 공급 - 확대: 2035 NDC 달성 지원을 위해 '26~35년(10년간) 790조원으로 확대 공급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 기후금융 웹포털 구축 : 기업의 친환경 활동 정보 제공 및 K-Taxonomy에 따른 정확한 녹색금융 판별 지원 -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 대출·투자 등 금융회사의 금융활동으로 인한 간접적 탄소배출량(Scope3) 산출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위의 보도 자료가 발표되자 기업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정부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기업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NGO는 ESG 공시 시기와 대상을 두고, 공시 대상이 기존 관례적 기준이던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보다 크게 축소되었다고 비판함. 또한 ISSB 기준이 공통 공시 요구사항과 함께 산업별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에 확정된 KSSB 공시 기준에서는 기후 외 지표는 모두 자율 공시임.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별 지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선택 공시사항으로 한 것은 기업에 상당한 유예를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하기도 함. 아울러 공시 채널은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법정공시로의 전환 시점 역시 이번 의견수렴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거래소 공시와 법정공시는 제재 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임. 다만 거래소 공시라고 하여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이는 공시된 ESG 정보를 투자 판단에 활용한 투자자가 허위·오류 공시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공시 시점 또한 핵심 쟁점으로 예상됨. 이번 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인 3월 말에 공시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기업의 부담과 배출량 인증 일정 등을 이유로 기존과 같이 6~7월을 희망하기 때문임. 한편 스코프3 배출량과 관련해 공급망에 속해 있는 소기업도 이슈임. 또한 국내외 ESG 공시 대상 기업은 스코프3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협력사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배출량 공시 의무 면제 대상인 소기업이더라도 공급망에 속한 경우 배출 정보 제출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공급사 차원의 표준화된 공시 틀이 없으면 대기업의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함. 이외에도 제3자 인증기관 선정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함.

다양한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녹색 전환(K-GX)을 위한 경로에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 → 수혜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녹색 전환(K-GX)을 위한 경로에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함. 이에 남은 시간 동안 민관이 협력해 보다 더 정교하게 준비해 여러 우려사항을 잘 해결하고 시행해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기대함. 또한 이번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준비가 잘되어 있는 기업과 특히 대규모로 집행될 기후금융 관련된 수혜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인테그럴스 파워, LMFP 양극재 1500회 충·방전·영하 25도 시험 통과

- 인테그럴스 파워의 LMFP 양극재, 독립 시험에서 1,500회 충/방전 이후에도 초기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결과 달성
- 저온 환경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영하 25도에서 초기 용량의 85%의 용량유지율 기록. 동일 조건에서 50% 내외의 용량유지율 기록하는 상용 LMFP 대비 우수한 성능 달성

Comments

-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위한 ESS의 중요성 지속
- ESS는 발전원에 직접 연동되며 EV 배터리 대비 충방전 횟수가 많은 만큼 안정성과 장수명 특성이 중요
- 이에 삼원계 배터리 대신 LFP 배터리 탑재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음
- 한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소형/저가 전기차 출시에 주력 중. LFP, LMFP 침투율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전망

– Analyst 박진수

셸, 2035년 '80만boe 공백' 경고…매장량 고갈이 부른 M&A 압박

- 셸, 성숙 유전의 생산 감소로 하루 최대 80만 배럴 상당 매장량 부족 및 생산 공백 직면
- 셸의 매장량 수명은 8년 미만으로 감소, 경쟁사인 엑슨모빌과 토탈에너지스 대비 4년 이상 낮은 수준
- 과거 가이아나 및 미국 셰일 자산 철수 결정이 자원 기반 약화로 이어지며 현 LNG 확대 전략만으로 만회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평가

Comments

- Shell 성숙 유전의 생산 감소로 중장기 생산 공백에 직면하면서, 대형 탐사 성과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자원 확보 압박이 다시 부상
- 매장량 수명이 짧아질수록 생산 유지나 확대를 위해 자산 매입 또는 대형 탐사 성과에 대한 의존도 상승
- 자원 기반 약화에 대해 멕시코만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투자와 기존 유전 개선을 통해 단기 공백은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밝혀. 그러나 점진적인 증산 프로젝트만으로는 중장기 목표 달성 어려울 전망

–Analyst 신홍주

국민연금 ESG 개혁 가속…책임투자 의무화·대체자산까지 전면 확대

- 책임투자 의무로, 운용은 전 자산군으로…국민연금 ESG 체제 개혁
- 대체자산·위탁운용사까지 감시 확대…책임투자 사각지대 줄인다
- 의결권 사전공개 4배 확대…투명성·주주가치 제고 병행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Comments

-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책임투자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
-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및 신탁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자산에도 책임투자를 적용하도록 해
- 국민연금 차원의 운용체계 개편도 병행 → 대체자산에 대해 'ESG 통합전략'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 위탁운용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 예정
-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실질적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
-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시 향후 국내 ESG 시장의 질적 성장이 기대돼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제약/바이오 담당 정유경 T.02)2004-9253 / jamie.choung@shinyoung.com

녹십자홀딩스(005250.KS)

Not Rated

Great Compa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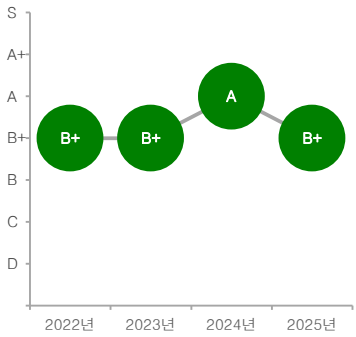
현재주가(3/3) 15,42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A	A	B
Bloomberg	59.0	69.4	70.5	54.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3. 3)

시가총액(억원)	7,252
배당수익률(26F,%)	0.0
외국인지분율(%)	11.4
주요주주 지분율(%)	
허일섭 외 29인	49.0 %
국민연금공단	7.0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3	-6.4	1.8	10.9
KOSPI대비 상대수익률	-5.3	-50.0	-80.1	-117.7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837	739
폐기물 발생량	Ton	103	96
환경관련 투자비	백만원	88	140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인증		
환경경영 조직	ESG 경영 협의체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산업재해율	%	0.0	0.0
기간제 근로자 비율	%	2.8%	3.2%
여성 근로자 비율	%	37.1%	40.6%
사회 공헌지출	백만원	29	26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2 주 전 홈페이지 게재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미실시
배당	기말배당
이사회 운영 실적	6 회

ESG 관련 최신 활동

GC녹십자, G등급 상승으로 종합 A 획득... 전원 사외이사 '감사위' 등 주효 (뉴스투데이, 25.11.26)

- GC녹십자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종합 A(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강화
- 지배구조(G) 부문이 2024년 B에서 'B+'로 한 단계 상승한 점이 종합 A 등급 확정에 영향을 줬다. 이외에 환경(E) 부문은 지난해와 같은 A를 받았으나, 사회(S) 부문은 A+에서 한 단계 떨어진 A 획득
- 환경부문에서 정량지표 기반의 환경성과 확대가 등급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녹십자홀딩스, 오너3세 포함 임원에 성과급 명분으로 자사주 처분 (더벨, 25.12.24)

- 12/24 임원 9명 대상 자기주식 보통주 39345주 처분 공시
- 임원 성과급 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자사주로 수령할지 여부를 자율에 맡긴 후의 결과로 임원 책임경영 강화 및 장기 성장 집중도 제고 전망
-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자사주 처분 흐름 속에서 보상수단으로 자사주를 선택하며 ESG 책임경영 강화 차원으로 해석됨

GC녹십자, ESG 사회공헌과 실적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RTK뉴스, 25.8.20)

- 다문화 가정과 시각장애 아동 등 독서 취약 계층을 위해 동화책 낭독 오디오북을 제작·기부하는 임직원과 함께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 캠페인 '소리드림'을 진행
- 녹십자수의약품도 '가치그린봉사단'은 경기도 용인 동물보호단체 '행강'을 찾아 임직원과 가족 20여 명이 함께 산책 봉사를 진행
- 충북 음성의 낙후 초등학교 외벽에 벽화를 그려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환경·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한 '플로깅' 캠페인도 임직원 적극 참여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1년	[S] GC녹십자의료재단 KOFIH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2022년	[ESG] 이사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협의체' 구축, 5개 상장 계열사와 ESG 철학·정책 공유 체계 수립
	[ESG] GC녹십자 2050 Net Zero 실현을 위한 ESG 전략 수립
2023년	[ESG] ESG경영 평가 항목을 반영한 협력사 평가 및 구매 규정안 공포
	[E] 친환경성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G] 녹십자홀딩스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획득
	[S] GC녹십자 고용노동부 주관 근무혁신 우수기업(S등급) 선정
2024년	[E] 오창공장, 음성공장 내 지붕 태양 발전소 운영(각각 1,325kW, 313kW 규모)
	[E] GC녹십자엠에스 국제 표준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인증획득
2025년	[E] GC녹십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전략 수립
	[S] 녹십자 홀딩스 중장기 사회공헌 로드맵 제시
2026년	[G] 녹십자 홀딩스 3개년 중장기 배당 정책 발표(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의 50%이상 배당)

ESG 전략

녹십자그룹은 GC 경영 철학을 구성하는 Mission & Vision과 Core Value를 바탕으로 ESG 경영 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사회·환경적 책임 이행과 ESG 경영 실행에 필요한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다." 라는 목표 하에 창의도전, 봉사배려, 정도투명, 인간존중이라는 Core Value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추구한다.

ESG Keyword – 헬스케어 접근성 확대

녹십자그룹은 헬스케어 접근성 확대, 고객 안전 및 품질 책임, 윤리 및 준법, 환경적 책임이라는 4대 주요 토픽에서 ESG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접근성 확대에서는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나아가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이바지하는 기업을 목표로 국내·외 헬스케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의약품 접근성 강화 전략을 수립, R&D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제약/바이오 전문가를 양성하여 헬스케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R&D 혁신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녹십자홀딩스 ESG 전략

자료: 녹십자홀딩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자료: 녹십자홀딩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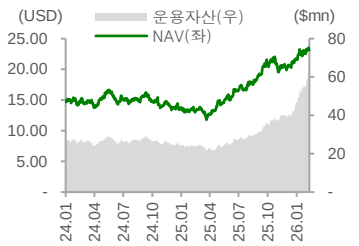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Fidelity Clean Energy ETF (FRNW)

Key Facts	
상장일	2021/10/05
기초지수	Fidelity Clean Energy Index
구성종목수	68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62.1
시장가격(USD)	23.22
NAV(USD)	23.15
총보수(%)	0.39
운용사	Fidelity

Top Holdings (기준일: 2026.2.26)	
GE Vernova Inc.	5.56%
Bloom Energy Corporation Class A	5.35%
Vestas Wind Systems A/S	3.78%
Enlight Renewable Energy Ltd	3.71%
Nextpower Inc. Class A	3.52%
EDP S.A.	3.44%
Nordex SE	3.13%
Orsted	3.04%
First Solar, Inc.	3.00%
Enphase Energy, Inc.	2.92%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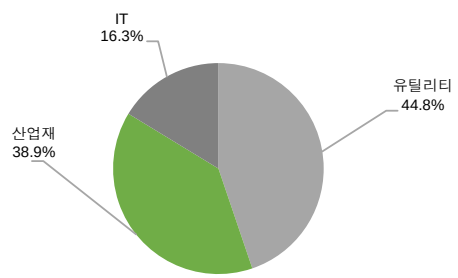
ETF 개요

Fidelity Clean Energy ETF (FRNW)는 2021년 10월 상장된 ETF로, 기초 지수인 Fidelity Clean Energy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이 지수는 ESG 관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청정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초 지수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선진국 및 신흥 시장 기업을 포함하며, 해당 기업은 청정에너지 유통, 청정에너지 장비 제조,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사업 활동 중 하나 이상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구성됨. 적격 기업은 자체 개발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주제 관련성 점수를 부여하여 구성함. 이 알고리즘은 공시된 기업 문서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청정에너지 기업을 식별하며, 이후 다양한 ESG 요소를 기준으로 기업을 추가적으로 선별함.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성함. 지수는 분기별로 리밸런싱 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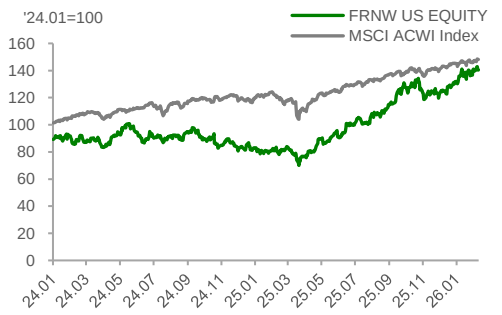
FRNW는 인공지능 관련 전력 수요 이슈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지역별로는 북미(45.0%), 유럽(29.5%), 아시아(22.3%), 중동(3.1%) 순으로 구성됨. FRNW는 실제 매출의 50% 이상을 청정에너지 관련 비즈니스에서 창출하고 있는 진정한 청정에너지 기업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함

FRNW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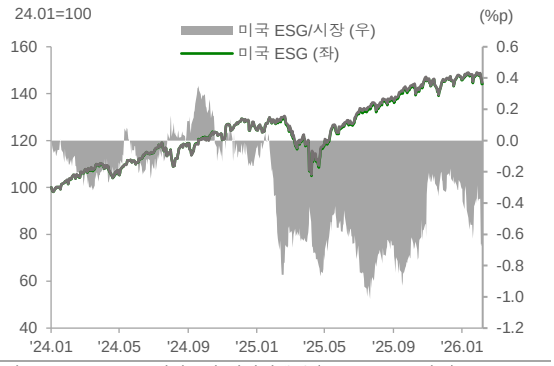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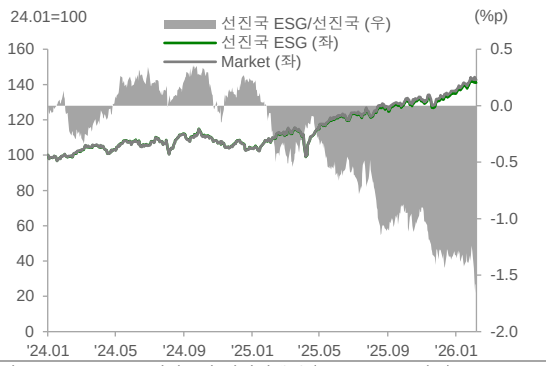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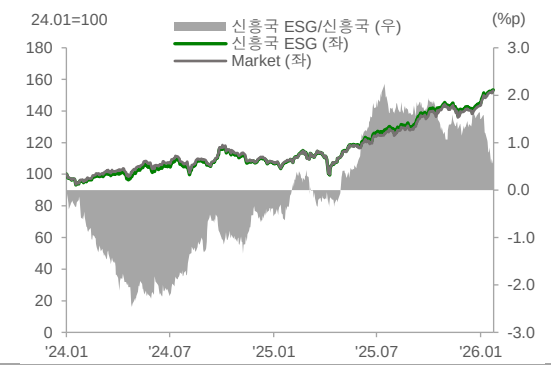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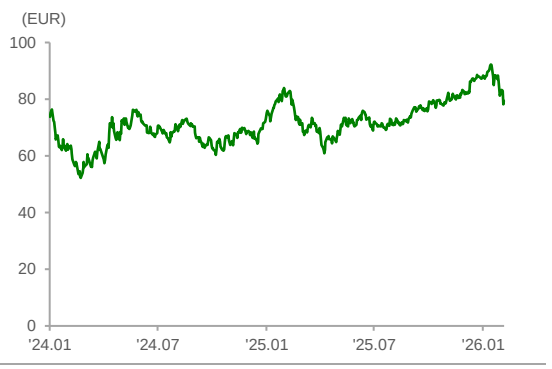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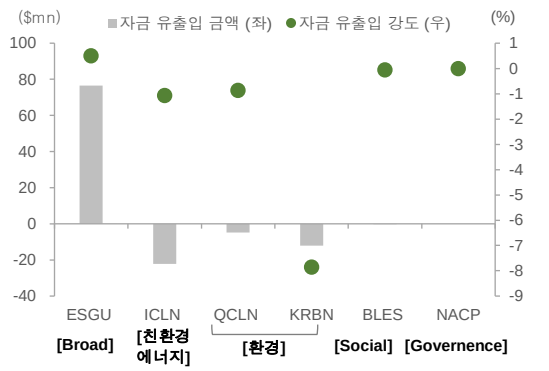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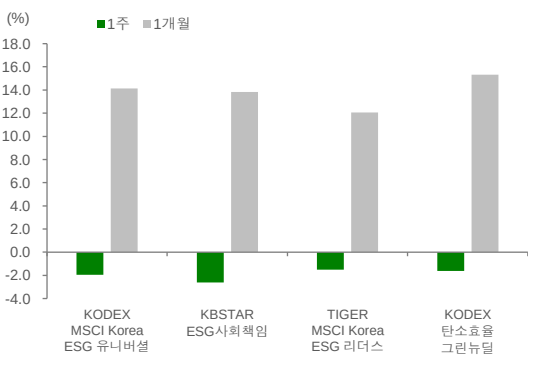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6,364	60	78.0%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2,159	13	11.0%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219	13	5.6%	13.4%
4	Social	5,540	5	5.0%	5.2%
5	Governance	412	3	0.4%	3.1%
6	기타	46	3	0.0%	3.1%
ESG 전체		**110,741**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5,446	-2.34	-2.69	0.24	6.36	77	84	0.5	0.5
	ESGV	11,607	-2.63	-3.57	-0.45	5.57	-6	6	-0.1	0.1
	SUSL	1,014	-2.99	-2.82	0.69	7.16	0	0	0.0	0.0
	NULV	1,966	0.46	2.10	6.66	12.61	-21	-48	-1.1	-2.5
	NUSC	1,199	0.05	1.00	7.53	14.42	-119	-126	-9.9	-10.5
	ESGE	6,163	-1.14	1.67	5.90	17.52	222	222	3.6	3.6
	ESGD	11,134	-0.59	1.94	6.43	12.12	-197	-245	-1.8	-2.2
	EAGG	4,567	-0.03	0.08	-0.18	0.85	163	163	3.6	3.6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079	-0.28	5.81	2.26	33.73	-22	-22	-1.1	-1.1
	TAN	1,505	3.15	8.95	11.15	55.21	354	354	23.5	23.5
Environment	QCLN	564	-3.67	-1.47	3.64	38.18	-5	-5	-0.9	-0.9
	SPYX	2,332	-2.11	-2.45	0.70	6.79	-144	-142	-6.2	-6.1
	CRBN	1,010	-1.84	-1.26	1.85	8.01	12	12	1.2	1.2
	KRBN	153	-3.18	-11.05	-5.28	5.72	-12	-12	-7.8	-7.8
Social	BLES	138	0.58	2.51	7.25	10.92	0	0	-0.1	-0.1
Governance	SHE	283	-2.96	-2.72	2.24	6.13	0	0	0.0	0.0
	NACP	63	-2.79	-1.69	3.05	14.97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58	-1.94	14.13	35.51	80.22	0.0	0.0	0.0	0.0
FOCUS ESG 리더스	110	1.36	12.76	16.26	33.00	0.0	0.0	0.0	0.0
KODEX 200ESG	712	-1.60	14.72	35.42	85.67	0.0	0.0	0.0	0.0
KBStar ESG 사회책임	1,296	-2.62	13.83	36.29	93.18	14.2	-37.8	1.1	-2.9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49	-2.08	14.12	35.33	79.29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52	-1.50	12.05	20.64	74.13	0.0	0.0	0.0	0.0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36	-1.61	15.32	33.48	70.91	0.0	0.0	0.0	0.0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80	-1.63	15.16	33.20	69.89	0.0	0.0	0.0	0.0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60	-1.62	15.24	33.36	70.59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2.27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6.02.09) 테슬라, 美 태양전지 생산 100GW 목표…뉴욕·애리조나·아이다호 공장 검토 - Impact-on

2028년까지 100GW 구축…현 미국 역량의 30배
中 태양광 기업 방문…제조 기술 접점 확대

(2026.02.09) 중국 니오, 배터리 스왑 1억회 돌파…수익성 검증은 과제로 - Impact-on

2819일 만에 1억회…운영 속도는 가속
스왑당 경제성…수익은 공개, 원가는 비공개
탄소 감축·인프라 확장…검증과 표준화는 과제

(2026.02.10) 셸, 2035년 '80만boe 공백' 경고…매장량 고갈이 부른 M&A 압박 - Impact-on

매장량 수명 8년 미만…동종업계 대비 짧아진 '버퍼'
가이아나·미국 셰일 철수 후과…M&A 압박 재부상

(2026.02.11) 인테그럴스 파워, LMFP 양극재 1500회 충·방전·영하 25도 시험 통과 - Impact-on

1500회 충·방전 후에도 80% 용량 유지
영하 25도에서도 85% 성능…유럽 생산 기반 구축

(2026.02.11) 엑손 "EU 메탄 규제로 원유 비용 13% 상승" 경고…원유·LNG 조달 질서가 바뀐다 - Impact-on

1500회 충·방전 후에도 80% 용량 유지
영하 25도에서도 85% 성능…유럽 생산 기반 구축

(2026.02.12) GM, 검증 안 된 LMR 배터리에 '운명' 건다 - Impact-on

"LMR이 실패하면 나도 실패"… 켈티의 배수진
60억달러 손실 후 반전 카드
LMR 배터리, 니켈·코발트 줄이고 LFP와 '중간지대' 노려
LG엔솔과 결별, 공급망 다각화

(2026.02.19) SAF 의무화 직격탄 맞은 에어프랑스-KLM의 경고..."아시아 노선 반토막" - Impact-on

SAF 의무화… "10년 내 13개 중 5개 노선 수익성 악화"
중동·터키 항공사 '반사이익'
SAF-BAM 도입 촉구… "공정한 경쟁 필요"

S (사회)

(2026.02.12) 나이키, DEI 공시가 '역차별' 조사 근거로…기업들 DEI활동 참여 급감 - Impact-on

EEOC, 나이키가 공시한 DEI 정보 바탕으로 조사 착수
美연방정부 반(反)DEI 기류 가운데, DEI평가지수 참여기업 65%급감

(2026.02.20) AT&T, 직원 다양성 공시 주주제안 배제…뉴욕시 연기금 4곳 소송 - Impact-on

"SEC 정책 변경은 면죄부 아니다"
트럼프표 'DEI 지우기'와 SEC의 우회 지원
액손 엔터프라이즈, '정치 자금 공시' 주주 제안 거부
기업의 경영 자율권 vs. 주주의 정보 접근권 충돌

G (지배구조)

(2026.02.09) KT 이사회, 신규 사외이사 선임 착수...지배구조 개선 분수령 - ESG경제

4명 신규 선임 논의, 경영공백 책임론 속 거버넌스 시험대
사외이사 전면 교체 가능성도 거론돼...국민연금 입장 최대변수
노조 "이사회 운영방식 전면 개선, 현 이사진 전원 사퇴해야"

(2026.02.10) 보스턴다이내믹스 나스닥으로…'중복상장' 딛고 정의선 승계 시동 - ESG경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선보여 우호적인 시장 기류...IPO 추진 급물살
상장 확약기한 한차례 연장...정의선의 지배구조재편 兆조단위 지렛대
인수한 해외법인이지만 '알짜 자산 떼어내기' 중복상장 논란 가능성
물적분할 아닌데도 상장철회한 LS그룹의 에식스솔루션즈 사례와 유사

정책 ESG 뉴스

ESG

(2026.02.25) 이억원 위원장, '35년까지 기후금융 790조원 공급...NDC 달성 지원 - ESG경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E (환경)

(2026.02.10) 중국, 석유화학·구리·항공사 탄소배출 보고 의무 전면 강화 - Impact-on

발전소 중심 탄소시장, 철강·알루미늄 이어 추가 확대
"가격은 낮아도 처벌은 무겁게"… 단속 강화 신호

(2026.02.19) EU, '유럽산 의무' 산업가속화법 초안 유출…FTA국 변수·中 투자 40% 규제선 - Impact-on

배터리·태양광·EV에 유럽산 기준… "GDP 14% 조달력 활용"
'신뢰 파트너' 추가 가능…글로벌 40% 점유국 투자 조건 강화
30% 비용 예외·제조업 20% 목표…회원국 이견 변수

(2026.02.19) IMO 탄소가격 1년 연기에도…이중연료 선박 74%로 확대 - Impact-on

IMO 탄소가격 연기에도 "30년 투자 관점은 그대로"
이중연료 선박, 수주 잔량의 74%
EU·영국 등 지역 규제가 투자 압박

(2026.02.24) EU 법인차량 전기화 법안, 2030년 전기차 목표 달성의 '열쇠' 될까 - Impact-on

유럽 교통환경 싱크탱크 T&E, 목표 상향 촉구… "현 제안은 야심 부족"
자동차 패키지 일환...법인차량 전기화 45% 목표
'PHEV 제외' '화석연료 기업차 보조금 퇴출'… 42억유로 논쟁
벨기에·덴마크 사례가 입증한 세제 개혁의 위력

(2026.02.24) OECD, AI 기업 실사 가이드 발표…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후 첫 국제 기준 - Impact-on

윤리에서 법제, 다시 가치사슬 실사로
6단계 프레임과 한국 AI 기본법의 교차점
VC 10년 새 20배…금융권도 실사 범주

S (사회)

(2026.02.12) EU, 공공조달에 '메이드 인 유럽' 의무화…산업가속화법 25일 제안 - Impact-on

EU 공공조달을 지렛대로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을 추진
'유럽산'과 '저탄소' 기준을 제도화하는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

(2026.02.12) EU '메이드 인 유럽' 70% 규칙…완성차 집단 반발 - Impact-on

"유럽산 부품 70% 써야 보조금"… 자동차 업계 '난색'
정책 일정도 흔들… "준비 안 됐다"는 내부 평가

G (지배구조)

(2026.02.19) 금감원, '자사주 처분계획·중대재해' 현미경 공시 점검- 한국경제

2025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재무·비재무 17개 항목 대상
자금 부정 통제 항목 첫 점검…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대폭 강화
자사주 1% 이상 보유 시 6개월·장기 계획 상세 기재해야

일반 ESG 뉴스

ESG

(2026.02.12) 국민연금 ESG 개혁 가속…책임투자 의무화·대체자산까지 전면 확대 - ESG경제

책임투자 의무로, 운용은 전 자산군으로…국민연금 ESG 체제 개혁
대체자산·위탁운용사까지 감시 확대…책임투자 사각지대 줄인다
의결권 사전공개 4배 확대…투명성·주주가치 제고 병행

(2026.02.24) 방산 ESG 법제화 시동…입찰 가산점까지 담은 'K-ESG 2법' 발의 - ESG경제

백선희 의원, 'K-방산 ESG 생태계 조성 2법' 대표발의
방위산업 특화 ESG 기준 마련 및 실질적 지원 근거 신설
ESG 우수 기업에 방위사업 입찰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2026.02.24) KOICA, '기후·디지털+성평등' 한국형 ODA 새모델 내놨다 - ESG경제

OECD, 통계 세션서 젠더마커와 SDG5 불일치 문제 제기
ODA 축소 전망 속 도덕적 호소보다 '구체적 데이터' 필요
정부 재원 한계, 민간투자·혼합금융 연계 방안 부상

E (환경)

(2026.02.20) 설치 늘어도 은 수요 감소…태양광 '탈은화' 가속 - Impact-on

은값 147% 급등…수익성 압박 현실화
은·구리 혼합에서 순수 구리로…전환 단계 진입
연 150억달러 절감 가능…완전 대체는 제한적

(2026.02.23) 영하 40도·1000℃ 견디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공개…고분자 전극·금속 젤 개발 - Impact-on

영하 40도서 용량 유지…저온 반응 둔화 억제
1000℃ 견디는 '금속 젤'…고온 배터리 이동성 확대

(2026.02.24) 글로벌 기업 청정 에너지 PPA 8년 만에 감소..BNEF보고서 - Impact-on

정책 불확실성과 수익성 약화로 글로벌 PPA 체결 둔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글로벌 재생에너지 구매 비중 49% 차지…
재생에너지 수요 견인

(2026.02.25) GRI, 대기오염 공시 기준 개정 위한 백업보고서 발표 - Impact-on

1000개사 분석…정량 공시는 3분의 1 미만
GRI 기준 적용 기업, 공시 범위 확대
오염 공시 기준 개정 추진…2027년 최종안

(2026.02.25) 美 기업 경영 흔드는 '에너지 가용성' 쇼크…2000기가와트 대기열 - Impact-on

전력 수요 증가…계통 접속 대기 2000GW 초과
데이터센터·제조업 전기화에 '순차 접속' 현실화
자본 효율성·투자 일정에 영향

S (사회)

(2026.02.25) AI축복이 경제붕괴의 서막인가… '2028년 지능위기' 보고서 뜯어보니 - ESG경제

'한계비용 제로' 지능의 시대, 자본-노동의 결별과 사회안전망의 실종
'유령 GDP' 막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분배 구조의 재설계 시급
전문직 실업자 양산 따른 '프라임 모기지' 부실發 금융위기 가능성

G (지배구조)

(2026.02.19) ISS "韓 집중투표제는 '조건부 안전장치'…이사회 설계구조 따져봐야" - ESG경제

7만5000건 안건 중 집중투표제 0.143%…관심·현실 괴리 뚜렷
이사회 규모·선거 구조가 효과 결정…'정적인 이사회 오류' 지적
2026년 '전환과 신호의 해'…"제도 도입 넘어 설계 구조가 핵심"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1231)	매수 : 87.18%	중립 : 11.54%	매도 : 1.28%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녹십자홀딩스	-	O	-	-	-	-	-	-